동련 30년, 어린이 포교 선구자로 '우뚝'

(사)동련, 6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봉행

'바른 어린이 불자상 정립' 등
30년 기념 3가지 비전 선포
"지도교사 양성, 가장 큰 과제"
책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길〉 봉정


사단법인 동련은 30주년을 맞아 6월 11일 경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천진불 불국토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어린이 포교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해 온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이 3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천진불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사)동련은 6월 11일 경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서 30주년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련 이사장 성행 스님과 역대 이사장 스님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등 25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30년사를 정리한 책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길〉 봉정식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및 환영사, 어린이 난타공연, 발원문, 합창 및 무대공연, 동화구연, 비전 선포, 법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동련은 30주년 비전으로 △바른 어린이 불자상 정립 △어린이 포교 전문지도사 네트워크 구성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고급 총 3개를 제시했다.

이사장 성행 스님은 어린이 포교 발판 구축을 위해 사부대중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지도교사 양성'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행 스님은 "무엇보다 어린이 지도교사의 부재가 안타깝다. 지도교사에 대한 산발적인 지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젊은 층의 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어린이 포교사가 사찰서 상근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동련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련이 어린이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종단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격려했다.

이어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은 전국 어린이 포교 사찰 현황을 조사하고, 사찰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사무국장은 "현재 전국 180여개 사찰이 어린이 포교를 실시하고 있다. 이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양질의 포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국장은 "많은 아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봉정된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길〉은 어린이 포교 역사와 활동을 정리하는 한편, 문제점 등 현황과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한 역대 이사장 및 이사 스님들의 제언들을 담아 동련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다뤘다.

1986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로 시작한 사단법인 동련은 대한불교교사대학,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동련동화구연회 등 산하기관을 이끌며 어린이 불자 양성 및 교사 양성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하성미 기자

삼광사, 부산소방안전본부·경찰청과 MOU

화재 희생자 후원 및 청소년 선도



부산 삼광사가 화마로 인한 피해자와 선도 및 보호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후원하기 위해 나선다. 사진은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진행한 MOU 장면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가 화마로 인한 피해자를 후원하는 한편,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나선다.

부산 삼광사는 6월 15일 부산소방안전본부 3층 영상회의실서 부산소방안전본부 및 한국소방 복지재단 부산지회와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삼광사는 앞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 원조, 소방시설 지원, 119 안전 기금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광사는 6월 16일 경내 법화당에서 부산경찰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삼광사는 선도 및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지 무원 스님은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을 격려하고, 경찰들의 수고로움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방관 및 경찰관들이 더욱 나라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동명불원, 어르신 손잡고 추억 나들이

6월 14일 어르신 50여 명 함께


부산 동명불원 심우회 회원들은 6월 14일 부산 용호동 지역 어르신과 함께 '추억 만들기 나들이'를 진행했다.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 신도회 '심우회' 회원들은 6월 14일 부산 용호동 지역 어르신과 함께 '추억 만들기 나들이'에 나섰다.

심우회원 10여 명과 어르신 50여 명이 함께 울산 대왕암공원 · 장생포고래박물관 관람 및 원예체험활동 등 각종 체험에 참여했다. 아울러 나들이에 앞서 동명불원 심우회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성재곤 심우회장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1년에 2차례 함께 나들이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한 최필선(가명) 씨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올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몸이 불편해 여행은커녕 집 앞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신경써주는 사람이 있어 고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화쟁으로 진정한 평화 이룩하길"

6월 10일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등


부산 진여원은 제 18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 가족 위안 행사를 6월 10일 부산 화명 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개최했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6월 10일 부산 화명 신도시 내 현충공원서 제18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 가족 위안 행사를 개최했다.

1부 식전행사로 위령재가 봉행됐으며, 2부 본행사는 왕생극락기원 등 밝히기, 육법공양, 헌화 및 분향, 묵념, 헌시, 왕생극락 발원문 등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3부는 보훈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 및 대중공양이 이어졌다.

진여원 회주 혜총 스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오늘날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립과 갈등을 떠나 모두가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화쟁정신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여원은 1997년 제1회 '호국영령 및 군경전몰장병 영가 합동천도재'를 봉행하고, 매년 보훈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BTN 남성 중창단, 신작 찬불가 발표회


BTN불교TV남성중창단의 신작 찬불가 발표회가 6월 12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BTN불교TV남성중창단(단장 추현철)의 신작 찬불가 발표회가 열렸다.

6월 12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는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BTN 불교TV 남성중창단은 '별 가득한 밤', '천년의 꿈', '혜능답송' 등 산사의 고즈넉함을 표현한 곡부터 혜능 스님의 법문을 담은 곡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울산정토사어울림합창단의 우정출연과 수월 스님의 특별공연도 펼쳐졌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찬불가는 불자들이 손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 법음과 같다"며 "이 불사를 통해 처처에 번뇌의 강을 건너는 모든 불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하성미 기자

오대산 사진展 대상 '기다림 그 찰나의 시간'

문광부 장관상, 이향배
총 200여점 중 28명 입상


대상 이향배 씨 작품 '기다림 그 찰나의 시간'

제12회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 수상결과가 발표됐다.

오대산 월정사는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4월 9일~5월 31일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6월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이향배(경기) 씨의 '기다림 그 찰나의 시간'이 선정됐으며, 이밖에 금상에는 안순응(경기) 씨의 '축일02', 은상은 곽춘진(강릉) 씨의 '오대를 품안에', 동상은 오태희(서울) 씨의 '배려' 등 작품이 각각 당선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00여 점 작품이 응모됐다. 이 중 대상을 차지한 이향배 씨의 작품은 "월정사 불교행사서 바라춤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자들의 진지하고 엄숙한 눈길, 표정을 색과 빛의 조화를 잘 살린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금상은 주최 측 상장 및 100만원, 은상은 50만원, 동상은 30만원, 입선은 상장 및 기념품이 전달된다.

▲입상작

△대상=기다림 그 찰나의 시간(이향배)

△금상=축일02(안순응) △은상=오대를 품안에(곽춘진) △동상=배려(오태희)

△입선=진신사리 이운식(곽수진), 불심(김영선), 부처님 오신날 연등빛 행진(신현임), 징검다리(최재화), 연등달기(박우현), 함께해요, 호기심(안순응), 염원을 담아(이향배), 월정사 소경(김복연), 월정사 금강문(김학수), 관불의식을 기다리며, 부처님 오신날 축하공연(김춘호), 염원을 달다, 삼보일배-자신을 낮추다(곽진순), 탑돌이(박재용), 길(최인순), 저 목어는 말이죠(김봉정), Circle Of Life(장낙종), 도량에서 울리는 선율(최재훈), 방생의 공덕2(정용섭), 하루를 마치며(김용태), 윤장대와 아이들(이숙경), 상원사(김부오), 정념 스님(정상대), 오대산 선재길(최인순), 바라춤-영원을 담다(최재혁), 탑돌이 행사3(이봉삼) 박아름 기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